

★ 총평

	정치	경제	사회	사회	문화	계
고대 이전	1 부여 (삼국지 위서 동위전 사료 첨가)					1
고대	2 5C~7C 삼국간의 항쟁 발해 무왕, 문왕의 구분				1 삼국시대의 사상과 문화	3
중세	3 고려의 정치와 사회 무신집권기 사건 순서 원간섭기_ 충선왕				1 고려시대 대장경 (의천의 속장경)	4
근세- 근대태동기	2 여말선초 명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1 천주교와 관련한 인물	1 영조 대의 편찬서적	4
개항기, 일제강점기	5				0	5
현대사	3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사건 -1950년대 정치와 사회 -박정희 민주주의 탄압					3
계	11	0	0	1	8	20

《 一中 한국사 정민혁 총평 》

★ 시대사별 출제 비중은 전근대사 12, 근현대사 8. 작년과 같은 비중으로 많이 출제됨. 그중 현대사 3 출제.
금년 기출 문제들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됨. 사실 금년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현대사 비중이 너무 낮음.
각 1문제씩 출제. 그러나 현대사 3 출제는 지나침.

★ 분류사별 출제비중은 문화사 3, 사회사 1, 정치사 16, 경제사 0.

주제별 출제 안배가 다소 불균형적. 또한 옳고 그름을 묻는 유형 9 출제. 수능유형 반영 이전의 암기형-고시형 한국사 스타일의 문제. 종합적으로 볼 때 어려운 척 하려는 서울시 스타일의 변칙적 출제로 보임.

★ 순서 나열형 4, 자료 제시형 5, 단순 문답형 11 출제됨.

★ 학생들 입장에서 생소한 역사적 시기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근현대사에서 제법 출제됨. 체감 난이도 다소 상승. 그러나 일중한국사 기본서의 근현대사 연표 정리와 연표로 끝내는 현대사 특강, 국가직-지방직-서울시 대비 일중한국사 동형 모의고사로 공부한 학생들은 무난히 정답을 찾음. 수업시간 때 강조한 다양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이해 중심의 공부를 실천한 학생들은 고득점도 가능함. 특히 박영효, 김옥균 등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배경지식을 설명할 때 여러 번 언급. 이번에는 박영효 출제됨.

★ 이번 서울시 9급 한국사는 작년 서울시 9급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움.

4월 국가직보다는 비슷하거나 약간 쉬운 수준. 1주일 전 지방직보다는 어려웠다는 학생들의 평가.

문 1.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풍속에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오곡이 익지 않을 때, 그 때마다 왕에게 허물을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 라거나 혹은 '왕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 정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는 국중 대회로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은 영고라 한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① 송화 강 유역의 평야 지대에서 성장하였다.
- ②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여러 가(加)들이 있었다.
- ③ 왕이 죽으면 노비 등을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 ④ 국력이 쇠퇴하여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에 완전 병합되었다.

정답 : ④ 부여와 관련한 사료.

④ 부여는 광개토대왕이 아닌 문자왕 대(494) 완전히 고구려에 복속.

- ① 부여는 만주 길림시 일대를 중심으로 송화(송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에서 성장. 반농반목, 경제적으로 풍요. 다섯 과일은 생산되지 않음.
- ② 부여는 연맹체 단계로 왕 아래에 마가-우가-저가-구가의 가축 이름을 딴 여러 군장들이 독자적으로 사출도를 다스림. 왕권 미약, 지방분권적.
- ③ 부여에는 왕이 죽으면 껌문거리와 함께 노비 등의 많은 사람들을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 존재. 순장은 지증왕 때 폐지.

적중: 一中國사 기본서 P.43 부여, P.44 부여 사료

문 2. 삼국 간의 경쟁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나) 백제 의자왕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 (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신라 지역으로 쳐들어온 왜국의 침략을 격퇴하였다.
- (라) 백제는 고구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 ① (나) - (다) - (라) - (가)
- ② (다) - (가) - (라) - (나)
- ③ (다) - (라) - (가) - (나)
- ④ (라) - (다) - (나) - (가)

정답 : ③

(다) 399년(4세기 말)에 신라에 왜구 출몰. 왜-백제-금관가야

연합. 왜구 격퇴하기 위해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5만 원병 신라로 보냄. 400년(5세기 초) 왜구 격퇴.

(라) 장수왕의 남하 정책, 백제 위례성(한성) 함락. 백제 문주왕은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475) 후기백제 개막.

(가) 백제 성왕은 신라와 연합을 통하여 북한강 하류 유역 확보.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신라에게 북한강 하류 유역을 빼앗김. 이에 격분, 대가야-왜와 연합하여, 554년 신라와 관산성(충북 옥천) 전투 벌임. 김유신의 조부 김무력의 비장 도도이 성왕 제거.

(나) 642년 백제 의자왕은 신라 공격,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개의 성을 빼앗음.

적중: 一中國사 기본서 P.56-58 5C~7C 삼국전쟁

문 3. 삼국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여 능산리에서 발견된 백제대향로에는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이 조각되어 있어 백제인의 신선사상을 엿볼 수 있다.
- ② 삼국 불교의 윤회설은 왕이나 귀족, 노비는 전생의 업보에 의해 타고났다고 보기 때문에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 관념을 제공하였다.
- ③ 신라 후기 민간사회에서는 주문으로 질병 치료나 자식출산 등을 기원하는 현실구복적 밀교가 유행하였다.
- ④ 고구려의 겸익은 인도에서 율장을 가지고 돌아온 계율종의 대표적 승려로서 일본 계율종의 성립에도 영향을 주었다.

정답 : ④ 겸익은 백제. 6세기 초 성왕 대에 인도에 유학, 구법하고 율장을 가지고 돌아와 백제 신율을 성립시켰고 일본 계율종의 성립에도 큰 영향.

① 백제의 금동대향로는 부여 능산리 절터 공방지에서 발견. 정상부에 봉황이 있고 아래로 다섯 악사와 다섯 마리의 기러기, 인면조신상, 인면수신상 등 상상의 동물과 현실 세계에 실재하는 동물 등을 새겨서 신선들이 사는 이상 세계를 표현. 도교 사상 반영.

② 삼국 불교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업' 설과 윤회설 및 연기설이 연결됨.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제시되어 왕권 강화에 기여. 귀족의 기득권도 인정하는 도구.

③ 7세기경 인도에서 성립된 밀교는 부처가 깨우친 진리를 직설적으로 은밀하게 표출시킨 대승불교의 한 교파.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밀교 수용됨. 신라 후기 민간사회에서는 현실 구복적 신앙과 연결, 질병 치료나 자식출산 등을 기원하며 유행.

적중: 一中國사 기본서 P.89 ① 삼국의 고승 및 일본전파, 2.백제 겸익의 업적

문 4. 빈칸에 들어갈 왕의 재임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발해와 당은 발해 건국 과정에서부터 대립적이었으며 발해의 고구려 영토 회복 정책으로 양국의 대립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당은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 흑수말갈 지역에 흑수주를 설치하고 통치관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당과 흑수말갈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발해의 () 은 흑수말갈에 대한 정보를 추진하였다. 이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비화되어 발해는 산둥 지방의 덩저우에 수군을 보내 공격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당은 발해를 공격하는 한편, 남쪽의 신라를 끌어들이어 발해를 제어하려고 하였다.

- ① 3성 6부를 비롯한 중앙 관서를 정비하였다.
- ② 융성한 발해는 ‘해동성국’ 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 ③ 왕을 ‘황상(皇上)’이라고 칭하여 황제국을 표방하였다.
- ④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고구려 계승 의식을 천명하였다.

정답 : ④ 발해 무왕 대 흑수말갈을 복속하는 과정에 당과 항쟁한 사실과 관련한 내용.

④ 발해 무왕은 일본에 보낸 국서를 통해 ‘고구려의 옛 영토를 모두 회복하였고 부여의 습속을 이었다’ 라고 하여 고구려 계승 의식을 드러냄. 당에 보낸 국서가 아님을 명심!

① 문왕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의 3성과 6부의 중앙 관제를 정비.

② 9세기 선왕은 5경 15부 62주를 완비. 요동과 만주를 비롯한 연해주 지역까지 차지하면서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림.

③ 왕을 ‘황상’ 이라고 칭하며 황제국을 표방한 것은 문왕. 전륜성왕을 자처하기도 함.

적중: 一中 한국사 기본서 P.70 8세기 발해 무왕, 문왕의 업적, P.71 선왕의 해동성국

문 5. 고려시대의 대장경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장경이란 경(經) · 율(律) · 논(論) 삼장으로 구성된 불교 경전을 말한다.
- ② 초조대장경의 제작은 거란의 침입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 ③ 의천은 송과 금의 대장경 주석서를 모아 속장경을 편찬하였다.
- ④ 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은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정답 : ③

③ 의천은 고려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기본으로 송과 요에서

들여온 대장경 주석서를 포함, 속장경을 편찬. 의천이 속장경을 간행한 시기는 선종부터 숙종 대까지로 1102년에 완성. 금나라는 1115 고려 예종때 건국. 의천은 문종 ~ 숙종 시기에 활동.

① 대장경은 경(經)·율(律)·논(論) 삼장의 불교 경전을 총칭.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것.

② 초조대장경은 부처의 힘으로 거란 침입을 격퇴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종때 거란 2차 침입 당시 제작.

④ 몽골 2차 침입 때 초조대장경(대구 팔공산 부인사 대장경) 소실. 흥왕사의 속장경도 불탐.

적중: 一中 한국사 기본서 P.169 고려시대 속장경

문 6.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김보당의 난 발생
- (나) 이의민의 권력 장악
- (다) 김사미와 효심의 난 발생
- (라) 교정도감의 설치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나) - (라) - (다)
- ③ (나) - (가) - (다) - (라)
- ④ (나) - (가) - (라) - (다)

정답 : ①

(가) 문신인 동북면병마사 김보당의 난은 정중부 집권기인 1173년에 발생. 최초의 반 무신의 난. 의종의 복위 도모, 실패.

(나) 경주 천민 출신 이의민은 경대승 사후 1183년에 집권. 중앙 중심 정치. 무신집권기 초반부는 정중부, 정균 부자 - 경대승 - 이의민의 순서!

(다) 이의민 집권기, 초전과 운문에서 김사미와 효심이 신라 부흥을 표방하며 난을 일으킴. 이의민을 계림의 적통이라 부름! (1193) 지금의 밀양, 울산, 청도 일대.

(라) 최충헌 집권기, 1209년 교정도감 설치, 최고권력기구가 됨. 최충헌 집권 1196, 만적의 난 1198(신종). 교정도감과 순서 정확히 암기 요망!

적중: 一中 한국사 기본서 P.134-135 반무신란 및 민란, 무신집권기의 정권교체 순서 및 정치기구

문 7. 고려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제도는 당과 송의 제도를 참고하여 2성 6부제로 정비하였다.
- ② 지방제도는 5도 양계 및 경기로 구성되었고 태조 때부터 12목을 설치하였다.
- ③ 관리 등용 제도로는 과거와 음서 등이 있었으며 무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④ 성종 대에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건의하는 등 유교정치 이념의 토대를 닦았다.

정답 : ②

② 고려는 성종 대 12목이 설치. 최초 지방관 파견. 현종 대 전국을 5도 양계의 이원적 체계로 정비, 경기 지역을 성종 대에 이어서 경중 5부와 개성현과 장단 현 등으로 구분.

① 고려는 당의 3성 6부제를 참고하여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의 2성 6부제로 중앙 관제 정비. 송의 제도를 참고하여 중추원과 삼사 설치.

③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는 문과, 잡과, 승과의 과거 시험, 5품 이상 고위 관료 자제들에게 혜택이 부여된 음서, 천거제도 등이 있음. 고려에도 천거제도가 있음을 기억하자. 무과의 경우에는 예종 대와 무신 집권기, 공양왕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시행되지 못함. 조선의 경우 승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음

④ 고려 성종은 6두품 출신 유학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 유교 정치 이념 실현 노력.

적중: 一 中 한국사 기본서 P.119 태조의 업적, P.122 성종의 지방제도(12목 설치)

문 8. 충선왕 대의 개혁 정책으로 옳은 것은?

- ① 원나라 연호와 관제를 폐지하였다.
- ② 몽골풍의 의복과 변발을 폐지하였다.
- ③ 왕권을 강화하고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기구로 사림원을 두었다.
- ④ 정치도감을 두어 부원 세력을 척결하였다.

정답 : ③

③ 충선왕은 충렬왕 대의 문한서를 사림원으로 개칭, 과거 출신자들을 등용. 왕명 출납 업무, 국왕의 고문 역할, 인사를 담당케 하는 권력의 핵심기구로 삼아 개혁 추진.

① 공민왕 대 반원 개혁 정치를 실시하면서 원의 연호를 폐지, 명의 연호 사용.

② 공민왕 대에 반원 개혁 정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 공민왕은 몽골풍 폐지.

④ 충목왕 대 개혁 기구로 정치도감을 설치. 안축, 김영돈, 권재 등 신진사류를 등용, 개혁정치 구현.

적중: 一 中 한국사 기본서 P.139 ①원간섭기_ 2. 충선왕/ 개혁 중심기구 사림원 설치 및 반원적 성격의 부족

문 9.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있었던 요동정벌 운동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왕 때 최영은 명이 철령위 설치를 통고하자 요동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 ② 태조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추진하였고 정도전과 남은은 군사 훈련을 강화하였다.
- ③ 명은 정도전을 '조선의 화근'이라하며 명으로 압송할 것

을 요구하였다,

④ 이방원은 태조의 요동정벌 운동을 적극 지지하였다.

정답 : ④ 태조 대에 정도전을 중심으로 요동 정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병 혁파 시도. 이방원은 이에 반발, 1차 왕자의 난(무인정사, 1398)을 일으킴, 정도전 제거. 이성계를 밀어낸 후 형인 방과를 정종으로 추대후 실권 장악.

① 우왕과 최영은 명의 철령위 설치 통보에 반발, 요동 정벌 단행. 이성계는 4불가론을 주장, 요동 정벌 반대. 출병후 위화도 회군을 통해 최영과 우왕 제거. 군사적 실권 장악.

② 태조 이성계는 표전문제 등으로 명과의 외교적 마찰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정도전과 함께 요동정벌 추진. 이에 따라 '정도전과 남은'은 군량미 확보, 정도전의 진법서(진도)에 따라 진법훈련 전개, 사병혁명 추진, 군사 훈련 강화.

③ 명은 표전문을 작성한 정도전을 '조선의 화근'으로 규정, 명으로 압송할 것을 요구. 조선은 이에 반발, 요동 정벌 추진. * 표전문: 중국에 대한 사대문서. 당시 명은 조선에서 명나라 주원장에게 보낸 글귀가 예의에 어긋난다는 명분으로 (이성계와 명 태조 주원장을 동등하게 기술) 표전문제를 일으킴.

적중: 一 中 한국사 기본서 P.197 태조대의 대외관계: 국초 명과 불편한 관계

문 10. 다음 중 영조 대에 편찬된 서적은?

- ① 『동국문헌비고』
- ② 『동국지리지』
- ③ 『동사강목』
- ④ 『동의보감』

정답 : ① 영조 대에 정조의 장인인 노론 홍봉한 등이 왕명으로 우리나라 각 영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한국학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 편찬.

② 『동국지리지』는 한백겸이 광해군 7년(1615)에 저술. 실증적, 고증적 비판이 이루어진 역사 지리서의 효시.

③ 『동사강목』은 성호 이익의 제자 순암 안정복이 스승의 역사 인식을 계승, 정조 2년(1778)에 저술한 역사서. 단군조선-기자조선-마한-삼국-고려로 이어지는 삼한 정통론을 강조.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우고 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 탈피.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사서!

④ 허준의 『동의보감』은 선조의 명에 의해 편찬되기 시작하여 광해군 2년(1610)에 완성된 의학 서적. 도교의술 반영, 한글 기록 존재, 해의 출판, 세계기록유산. 주변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약재 소개.

적중: 一 中 한국사 기본서 P.258 영조대의 편찬서적 목록

문 11. 조선 전기 일본과 관계된 주요 사건이다.
(가)~(라) 각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다)	(라)
	1392	1419	1510	1592
	조선전국	쓰시마토벌	3포왜란	임진왜란

- ① (가) : 부산포, 제포, 염포 등 3포를 개항하였다.
② (나) : 계해약조를 체결하여 쓰시마 주의 제한적 무역을 허락하였다.
③ (다) : 왜선이 침입하여 을묘왜변을 일으켰다.
④ (라) : 조선은 포로의 송환 교섭을 위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정답 : ① 부산포, 제포, 염포의 삼포 개항은 1426년(세종 8)의 사실. 왜관 최초 설치. 부산포(동래) · 염포(울산) · 제포 (진해) 개항, 조선의 통제 아래 세건선(歲遣船)이 조선과 일본을 왕래. 합포는 지금의 마산.

② 계해약조는 1443년 세종때. 삼포 개항 후 지나치게 증가된 무역량을 제한하는 조치. 일본과의 무역량은 최대 세사미두 200 석, 세건선(歲遣船)은 50척으로 제한.

③ 왜선 70여 척이 전라남도 연해안 사건을 습격한 을묘왜변은 1555년(명종 10년)의 사실이다. 비변사의 상설기구화!

④ 임진왜란 이후 새롭게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막부(에도 막부)는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대마도 주를 통해 조선에 국교를 재개 요청. 이에 조선은 막부 사정을 알아보고, 전쟁 중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사명대사를 파견, 일본과 강화한 후 조선인 포로(피로인) 7000여 명 송환(1607, 선조). 한편 1609년(광해군)에는 입경 불허, 부산에 왜관을 재설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교섭을 허용하는 기유약조 체결. 무역재개.

적중: 一中 한국사 기본서 P.239 ①일본과의 관계_강경채 및 충돌

문 12. 다음 (가)~(다)의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스승 이벽의 권유로 북경에 갔다가 서양인 신부의 세례를 받고 귀국하였다.
(나) 성리학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학문답』을 저술하였다.
(다) 신부가 되어 충청도 당진(솔피)을 근거로 포교하다가 붙잡혀 처형되었다.

- (가) (나) (다)
① 이가환 안정복 황사영

- ② 이승훈 이기경 황사영
③ 이승훈 안정복 김대건
④ 이가환 이기경 김대건

정답 : ③

(가) 이승훈은 1780년(정조 4)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벼슬을 단념하고 학문에 전념하다가 이벽을 만나 천주교 입교. 1784년 사신단의 일행인 아버지를 따라 서장관으로 청에 가서 북천주당 예수회의 그라몽(Louis de Grammont) 신부에게서 영세를 받고 한국 최초의 천주교 영세신자가 됨.

(나) 『천학문답』은 조선 후기의 학자 안정복이 쓴 천주교에 대한 비판서. 안정복은 이벽, 권철신, 권일신,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 등 남인 소장 학자들이 유교적 정학(正學)을 공부했음에도 사학(邪學)인 한역 서학서(漢譯西學書)를 가까이하여 사교(邪敎)에 몰두하는것을 반대. 『천학교(天學考)』와 함께 이 책을 편술.

(다) 김대건 신부. 멀리 마카오로 유학을 보냈던 김대건이 조선 인으로서 최초로 신부가 되어 헌종 11년에 귀국. 이후 충청남도 당진(솔피)을 근거로 서울을 향하여 각지를 순방하면서 비밀리에 신도들을 격려하고 전도. 이처럼 김대건은 교회재건에 헌신하다가 다음해 성직자 영입을 위한 해상루트 개척차 서해에 나갔다가 체포.

* 이가환: 1784년 생질인 이승훈이 북경에서 돌아오고 동료 학자들이 서학에 관심을 가졌을 때, 천주교에 대한 학문상의 관심과 우려로 이벽과 논쟁을 벌이다가 도리어 설득되어 천주교 입교. 이벽으로부터 서학 입문서와 『성년광익(聖年廣益)』 등을 빌려 탐독하고, 제자들에게도 전교하는 열렬한 신자가 됨.

1791년 신해박해 때에는 교리 연구를 중단하고, 광주부윤(廣州府尹)으로서 천주교 탄압. 그 뒤 대사성 · 개성유수 · 형조판서를 지냈고, 1795년 청나라 주문모(周文謨) 신부의 입국사건에 연루되어 충주목사로 작전. 그곳에서도 천주교인을 탄압하다가 파직. 그 뒤 다시 천주교를 연구해 1801년 이승훈 · 권철신 등과 함께 옥사로 순교. 정조로부터 '정학사(貞學士)'라 호칭될 만큼 대학자. 특히 천문학과 수학에 정통해 스스로 "내가 죽으면 이 나라에 수학의 맥이 끊어지겠다."라고 할 만큼 수학의 대가. 저서로는 『금대유고』가 있다.

적중: 一中 한국사 기본서 P.259_ 이승훈, P.266 확인문제 안정복의 "천학문답", p.267 김대건

문 13. 근대의 구국 계몽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송수만, 심상진은 대한자강회를 조직하고 일본의 황무지 개척에 반발하는 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철회시켰다.
② 이종일은 순 한글로 간행한 황성신문을 발간하여 정치 논설보다 일반 대중을 위한 사회계몽 기사를 많이 실었다.
③ 최남선은 을지문덕, 강감찬, 최영, 이순신 등의 애국명장에 관한 전기를 써서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④ 고종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친서를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의 대한매일신보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정답 : ④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이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초빙하여 1904년에 창간, 고종이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친서를 발표.

① 송수만, 심상진 등이 일제의 황무지 개척에 반발하여 설립한 애국 계몽 단체는 보안회(1904)이다. 협동회로 개칭, 아상설, 이동휘 맹활약, 농광회사 설립. 대한 자강회는 1906년 윤효정·장지연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애국계몽운동 단체. 갑신정변과 독립협회의 정신이 계승된 단체였으나,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체.

② 이종일이 창간한 신문은 황성신문이 아니라 제국신문(1898)이다. 이종일 사장, 이승만 주필. 제국신문은 순한글로 매일 4면을 발행했으며 한문을 익히지 못한 부녀자, 하층민을 독자층으로 함. 한국의 문명개화 및 국권 수호와 관련된 계몽주의적, 민족주의적 성격 지향. 황성신문과 함께 의병활동에 대해 부정적

③ 신채호에 대한 설명.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에 '조선제일위인 이순신전'을 연재, 나중에 책으로 출간. 한일합방전 을지문덕전, 강감찬전, 최동통전(최영), 이순신전 저술.

적중: 一中國사 기본서 P.416 언론기관의 활동_ 대한매일신보

문 14. 대한제국의 성립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을미사변 이후 위축된 국가 주권을 지키고 고종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 ②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동안 경운궁을 증축하였다.
- ③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 하고 경운궁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 ④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제를 발표하였다.

정답 : ③ 1897년 2월, 1년여간의 아관파천을 마감한 고종은 원(淸)구단에서 국호를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로 고치고 황제라 칭하여 대한제국이 자주 국가임을 내외에 선포.

① 을미사변 이후 더 이상 일본의 영향 아래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 고종은 1896년 2월 일제의 강압을 모면하고자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 아관 파천 후 약 1년 만에 고종은 자주독립의 근대 국가를 세우려는 국민적 열망과 러시아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려는 국제 여론에 힘입어 경운궁(지금의 덕수궁)으로 환궁(1897. 2. 20). 1896.4 독립신문 창간, 1896.7 독립협회 창설. 시간흐름 압기! 고종은 환궁후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독립

협회와 갈등. 결국 황국협회를 통해 독립협회 해산시킴.

② 경운궁은 조선 전기 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거처. 임진왜란 이후 임시 궁궐로 사용하면서 광해군이 경운궁(慶運宮)이라는 궁호를 붙임. 경운궁이 다시 궁궐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1896년 아관파천 이후. 고종은 아관파천 기간 동안 경운궁을 수리하도록 지시를 내리면서 명성황후의 빈전을 경운궁 별전으로 옮기고, 경복궁에 봉안되어 있던 역대 선왕의 어진을 경운궁 별로 옮기기도 함. 이후 1897년 2월에는 경운궁 공사를 속히 준공하도록 지시를 내림.

④ 대한제국의 헌법은 전제 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국제. 반포는 1899. 8. 대한민국 국제를 통해 국가의 모든 권한(통수권·입법권·행정권·사법권·외교권)이 황제에게 집중되었으며, 군주의 전제권은 더욱 강화.

적중: 一中國사 기본서 P.383 원구단에서 황제식 거행

문 15. 일본이 대한제국의 정부 기관에 자신들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게 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조약은?

- ①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
- ② 1904년 8월 제1차 한·일 협약 (한·일 협정서)
- ③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 (을사늑약)
- ④ 1907년 한·일 신협약 (정미7조약)

정답 : ② '고문 정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에 해당하는 조약을 찾는 문제.

② 일제는 한국의 재정 및 외교 정책 쇄신을 위한 외국 고문의 초빙에 대한 협정 체결을 한국 정부에 강요. 1904년 8월 22일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 이에 따라 재정 고문으로 일본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 외교 고문으로 친일 미国人 언론가 스티븐스가 초빙됨. 일본의 외교권·재정권 장악). 한편, 일본은 2명의 고문 용병 이후, 하등의 근거도 없이 자진 초청의 형식을 빌려 군부, 내부, 학부, 궁내부 등 각 부에도 모두 고문을 두도록 하였다.

① 러일전쟁 직전,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 체결로 인해 일본은 군사 전략상 필요한 곳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한 제국은 일본의 승인없이 제3국과 의정서에 반하는 조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었다.

③ 러일전쟁 승리 이후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이 국제적으로 인정. 사실상 대한 제국은 일본의 보호국 상태. 외교권 박탈. 1905년 11월 외부대신 박세준의 이름으로 한·일 협상 조약(韓日協商條約 = 제2차 한·일 협약), 이른바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

④ 일제는 헤이그 밀사 파견을 명분으로 1907년 7월 21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킴. 이어 7월 24일 이완용과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을 체결. 이 조약으로 통감의 권한이 확대되고 차관정치(次官政治)가 실시되었다. 정미7조약 비밀각서에는 군대해

산이 들어있음. 해산군인의 정미의병 참여로 항일의병 전쟁화!
 적중: 一 中 한국사 기본서 P.428 ㉠1차 한일협약_고문정치

문 16. 다음 약력에 해당하는 인물은?

- 1872년 철종의 딸 영혜옹주와 결혼
- 1884년 갑신정변에 참여함. 실패 후 일본 망명
- 1894년 내무대신에 임명됨. 다음해 일본 망명
-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일본의 작위를 받고
 동아일보사 초대사장, 중추원의장·부의장,
 일본 귀족원 의원 등 역임

① 박영효 ② 윤치호 ③ 김옥균 ④ 김홍집

정답 : ① 제시된 인물은 박영효.

① 박영효(1861~1939)는 1872년 철종의 딸인 영혜 옹주와 결혼, 부마가 됨. 형 박영교를 통해 김옥균과 교류. 1882년에 임오군란의 사후 수습을 위해 특명 전권 대신 겸 3차수신사로 일본 방문, 일본 정계의 지도자 및 서양 외교 사절들과 접촉. 최공식적인 태극기를 제작함. (최초의 태극기 제작은 1882.4.6. 조미수 호통상조약때 역관 이응준) 한성 판문 재직시 최초의 근대식 인쇄소인 박문국 설립,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발간. 민씨 정권의 견제를 받아 광주 유수로 물러났으나 오히려 이곳에서 신식 군대 양성, 이 중 일부가 갑신정변에 동원됨. 1884년 갑신정변 단행, 실패, 일본으로 망명.

1894년 2차갑오개혁때 귀국, 자주적 개혁 시도. 고종 폐위 음모로 다시 일본으로 망명. 1907년 귀국하여 다시 사면되었으며, 한일병합 이후 일본으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중추원 고문, 귀족원 의원을 지내는 등 친일 행적도 남김. 물산장려운동에 참여, 사회주의자들의 반발을 일으킴. 1939 사망.

② 윤치호(1865~1945)는 1881년(고종 18) 17살의 최연소자로서 신사유람단에 참여. 뒤에 미국 유학, 1883년 조미수호조약 비준 때 미국공사 푸트의 통역관으로 귀국. 1896년에는 서재필·이상재·이승만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 1898년 회장과 독립신문 사장을 겸임. 1906년에는 장지연·윤호정 등과 대한자강회 조직.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체포, 10년형을 선고받음. 일제 말기에 귀족원 의원을 지냄. 광복 후 친일파로 규탄받자 개성(開城)자택에서 자결.

③ 김옥균(1851~1894)은 조선 후기 급진 개화파. 갑신정변을 주도. 그러나 갑신정변이 삼일천하로 끝나자 일본으로 망명, 10년간 방랑. 1894년(고종 31) 상하이에서 자객 홍종우에게 암살. 1895년(고종 32)에 서광범과 김홍집의 상소로 반역죄가 용서되고, 1910년(융희 4)에 규장각 대제학에 추증.

④ 김홍집(1842~1896)은 26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1880년에 2차수신사로 일본에 파견. 이 때 청나라 황준센의 『조선책략』을 가지고 들어와 위정척사파의 거센 반발을 일으킴. 온건 개화파로 외교 수완이 뛰어남. 1896년에 아관 파천 직후 친일파로 몰려 체포령이 내려지자 피신하라는 일본군의 권고를 뿌리치고 집

에서 군중들에게 붙잡혀 맞아 죽음.

적중: 一 中 한국사 기본서 P.368 갑신정변, p.378 2차 갑오개혁

문 17.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설치
- ㄴ. 농지 개혁법 시행
- ㄷ. 안두희의 김구 암살
- ㄹ. 제주 4·3 사건 발생
- ㅁ. 여수·순천 10·19 사건 발생

① ㄱ, ㄴ, ㅁ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②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의 사건을 고르는 문제.

ㄱ. 1948년 8월 16일 헌법 제 101조에 의거, 국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반민기초특위) 구성됨. 9월 22일 제헌 국회에서는 법률 제3호 반민족 행위 처벌법(약칭 : 반민법) 제정·공포. 이후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특위, 1948. 10. 23) 설치, 본격적 활동 개시.

ㄴ.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영향을 받아 ‘농지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 그러나 지주 출신이 많았던 국회에서 견제를 받다가 1949년 6월에야 ‘농지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제정, 1950년 3월 시행령 공포. 625로 중단, 58년 완성.

ㄷ. 1949년 6월 26일, 김구는 자택인 경교장(현 삼성 서울 병원 강북)에서 육군포병 소위 안두희의 총격에 암살당함. 안두희는 단독범행이라고 주장, 김구가 공산주의자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이유로 암살했다고 함. 훗날 안두희는 평범한 시민 권중희, 곽태영, 박기서에 의해 여러차례 피습, 결국 박기서의 정의봉에 의해 1996. 10. 23. 11시 30분 인천 신흥동에서 사망함. 체포 당시 형사는 박기서를 격려했고 예우를 갖춰 호송했다고 함. 박기서는 3년형 선고받고 복역후 사회각계의 구명운동으로 석방. 년표 수업때 김구 암살 시기와, 배후 등 정의봉 조심하자며 자세히 설명.

ㅁ. 여수·순천 14연대 반란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 진압을 위해 여수 주둔 국군 14연대에 출동 명령이 내려졌으나 군부대 내 좌익 세력을 중심으로 “ 동족을 학살할 수 없다!”,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 정부 수립!” 등을 주장하며 여수·순천 일대 점령.

ㄹ.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 제주읍 관덕정에서 열린 3·1절 28돌 기념 집회에서 경찰이 발포하여 6명 사망. 공권력에 의한 폭력 진압에서 시작됨. 이를 계기로 제주도민과 미군정 및 우파 간의 갈등 격화. 경찰과 서북 청년단(극우 단체. 당대 최고의 주먹 시라소니, 명동파 이화룡 등 평안도 출신도 서북청년단원. 이들이 직접 제주에 내려갔

는지는 의문) 제주도민을 탄압하자, 좌익 세력의 선동으로 1948년 4월 3일 제주도민들 일제히 봉기. 이들은 ‘좌파에 대한 폭력적 탄압 중지!’, ‘단독 선거, 단독 정부 반대, 민족 통일!’, ‘미군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침. 미군정은 군대까지 동원하여 무차별 발포로 강경 진압. 민가의 70%가 불타고 무고한 양민 3만명 이상이 희생됐다는 보고. 20세기초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수 없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사건.

적중: 一中 한국사 기본서 P. 525 반민특위 설치, 여수·순천사건/ P. 529 농지개혁법, 김구암살

문 18. 1950년대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승만 정권은 1951년 국민회, 대한청년당, 노동총연맹, 농민총연맹, 대한부인회 등 우익단체를 토대로 자유당을 조직하였다.
- ② 이승만 정권은 신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고 반공청년단을 조직하였으며 진보당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하였다.
- ③ 미국의 원조로 소비재 공업이 성장하였고 밀가루, 설탕, 면화 산업 등 삼백산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 ④ 이승만 정권은 1954년 의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직선제개헌안을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시켰다.

정답 : ④

④ 1954년 의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아님.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금지 조항 폐지와 관련된 2차 개헌안. 직선으로 재선된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3선 금지 조항 폐지)을 골자로 한,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안을 통과시킴 (1954). 직선제로 바꾼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당선이 불확실해진 이승만의 1차 개헌. 50년대 팩트를 추가한다면 정비석의 자유부인, 6.25중 장준하의 사상계 창간, 미국의 매카시즘 열풍, 58년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완간, 54년 대한민국 학술원 개원.

① 자유당은 1951년 12월 6.25 전쟁중 창당된 정당. 이승만이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을 만들 필요성에서 결성. 임시 수도 부산에서 1951년 12월 23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원내)자유당과 이승만 지지세력에 의한 (원외)자유당이 각기 같은 날 발당식을 가지며 탄생.

(원외) 자유당에는 국민회, 대한노총, 대한부인회, 대한청년단, 대한농총 등이 참여, 주도세력은 미군의 지원을 받았던 이범석의 민족청년단계(죽청계). 또한 (원외) 자유당은 관권을 업고 조직을 확대한 관제정당. 이승만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집권여당이었던 자유당은 오로지 이승만의 명령에 복종하는, 이승만을 유일 절대 지도자로 떠받드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일반 정당과 확연히 다름. 부정부패의 대명사.

② 이승만과 자유당은 대공 사찰 강화와 언론 통제를 골자로 한 신국가 보안법(1958. 12. 24)과 지방 자치제 개정안을 경찰을

동원하여 야당 의원을 국회 지하실에 감금시키고 통과시킴. 이어 개정된 보안법을 통해 경향신문 폐간 조치(1959. 4. 30). 한편 이승만 정권은 1960년 3·15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선거전 위대로 대한반공청년단을 조직. 그리고 1959년에는 진보당 당수 조봉암과 박정호 등을 간첩 혐의로 사형시킴(1959. 7. 30, 진보당 사건)

③ 1950년대 원조 경제의 상황이다. 195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로 삼백 산업[밀가루(제분)·설탕(제당)·면직물(면방직 공업)]을 바탕으로 한 재벌 성장.

적중: 一中 한국사 기본서 P.533 사사오입: 초대대통령 중임제한 폐지

문 19.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만약 지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국 출장소원에게 신고 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는 당국에서 이 토지에 대해 지주의 소유권 유무 등을 심사하여 만약 소유자로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토지를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연히 국유지로 편입하는 수단을 집행할 것이니, 일반 토지 소유자는 고시에 의한 신고 제출을 게을리 하지 말도록 하였던다.

- 「매일신보」 -

- ① 소유권 분쟁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 ② 명의상의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동중·문중 토지의 상당 부분이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 ③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직후 신속하게 사업이 시작되었다.
- ④ 사업의 결과 조선 총독부의 재정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1912-1918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신고 절차를 고지한 내용.

①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명분은 지세 부담의 공평, 지적 확정과 소유권 보호, 토지 개량과 이용의 자유 보장, 생산력 증진 등. 토지소유권의 확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은 한국인 사이의 토지소유권 다툼이나 경계 분쟁이 아님. 분쟁의 대부분은 민유지 대 국유지의 분쟁, 일본인 대 한국인 사이의 경계 다툼 등이 다수.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3만 3천여 건의 분쟁 중에서 일제의 관권에 의해 화해·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1만 2천여 건. 따라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서술은 틀림.

② 토지 조사 사업에서 기한 내 미신고 토지는 물론, 신고했다 하더라도 문중이나 마을의 소유지처럼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공공 기관이 소유한 토지·산림·초원·황무지 등이 모두 총독부에 의해서 몰수.

③ 국권 피탈 이후 일제는 식민지 경제 체제를 완비하는 데 주

력. 그 결과 일제는 총독부 산하에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1910.10)하고 토지 조사령을 공포(1912). 이후 1918년까지 토지 조사사업 실시.

④ 토지 조사 사업 시행으로 총독부는 지세 부과 대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함. 이를 통해 식민 통치 자금 확보. 과세지는 10년 사이에 52% 증가. 총독부의 지세 수입도 2배로 증가, 총 조세 수입의 약 3분의 1 이상.

적중: 一 中 한국사 기본서 P.488 토지조사 사업의 많은 분쟁

적중: 一 中 한국사 기본서 P.561

문 20.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김영삼 신민당 당수 국회 제명
- (나) 김대중 납치 사건 발생
- (다) 유신 헌법의 국민투표 통과
- (라) 국민교육헌장 제정
- (마)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 ① (라)-(마)-(다)-(가)-(나)
- ② (라)-(마)-(다)-(나)-(가)
- ③ (마)-(다)-(라)-(가)-(나)
- ④ (마)-(다)-(라)-(나)-(가)

정답 : ②

(라) 국민교육헌장 제정은 1968년. 3공화국때.

적중: 一 中 한국사 기본서 P.549

(마)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3원칙을 천명한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는 1972년 7월 4일.

적중: 一 中 한국사 기본서 P.553

(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 을 단행하고 이후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적중: 一 中 한국사 기본서 P.558

(나) 김대중 납치 사건은 1973년 8월 8일. 신변상의 이유로 일본에 체류 중이던 김대중은 유신 헌법 공포 이후 귀국을 포기하고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약칭 한민통)를 결성하는 등 반유신 활동 주도. 이후 김대중은 일본 도쿄의 그랜드 팔렌스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납치당하여 한국으로 연행되었다가 129시간 만인 8월 13일에 서울 동교동 자택에서 풀려남.

적중: 一 中 한국사 기본서 P.555

(가) 1979년 8월 가발 수출 업체인 YH 무역의 폐업 조치에 항의하여 여성 노동자들이 야당인 신민당 당사에 들어가 농성(YH 무역 사건).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1979년 8월 11일 새벽 2시 농성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 이 과정에서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를 상도동 자택으로 강제 연행, 농성 노동자 김경숙이 건물 옥상에서 추락, 사망. 이 사건은 신민당의 무기한 농성과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제명으로 이어짐. 이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인 부·마 항쟁 촉발 계기. 10.26 박정희 유고 사태의 배경.